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 연구

안 창 현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A Study of Decorative Pattern Shown in e Mural Painting of Koguryo Dynasty's Tomb

Chang-Hyun An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3. 2. 27 투고)

ABSTRACT

Mural Painting of Koguryo Dynasty, root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has 5 types of pattern in its 24tombs: Fire pattern, Sun · Moon pattern, Flying angel pattern, Hill · Tree pattern, Holy animal · bird Pattern. These patterns had developed specially in 3 regions that are Hwanghae-region, Pyongan-region, Jipan-region, from 4th-7th Century.

A lot of fire pattern has found at Pyongan-region in 5th century. The ceiling right above 'Dori' frequently had the pattern. The pattern is organized in 'Kyoho' method.

The sun · moon pattern was shown in Pyongan-region in 5th century. '3-leg bird', representative of sun, and frog, representative of moon, were drawn in the pattern in 6th century, rabbit was added with frog in the pattern.

Flying angel pattern had found most in Jipan region in 5th century. The pattern was not found in 4th century. Two types of the pattern are angel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angels preying.

The hill · tree pattern was simple, antique, and immature in the beginning. the pattern had developed with real description as a landscape picture after the beginning. this pattern has been categorized as a landscape painting.

Holy animal and bird patternn had placed in supporting rock between ceiling and floor with the mean of protection in after life

These pattern, which were previously influenced by Chines culture, were developed with a base of Koguryo own tradition and supported establishment of a characterized Koguryo Cluture. This study will be a basic document for modern fashion industry of 21 century.

Corresponding author: Chang-Hyun An, E-mail: anni827@hotmail.com

본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9)을 요약,정리한 논문입니다.

Key words : fire pattern(화염문), sun · moon pattern(일 · 월문양), flying angel pattern(비천문양)
hill · tree pattern(산 · 나무문양), holy animal · bird pattern(서수 · 서조문양)

I. 序 論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통구〔通溝: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현(吉林省 輯安縣)]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유역과 평양(平壤)을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 그리고 황해도지방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약 90여 기(基)¹⁾가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자가 확인한 고분은 50개였고, 이중 장식문양이 나타난 고분은 31기(基)였다.

고분벽화가 그려진 시기는 4세기부터 7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로서 고분내의 벽화는 한국문양의 시원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고대 한국 문화의 예술, 종교, 삶의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기하학 문양에서부터 양식화된 문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문양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크게 인물풍속도, 사신도, 장식화로 구분된다²⁾. 이 때까지 장식문양에 관한 연구는 연화문, 구름문, 당초문, 기하학문양 등 단독 무늬에 관한 연구³⁾가 대부분이었고 24개 벽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식문양을 다룬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대별, 지역별 장식문양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장식문양 중 많이 연구되어진 연화문, 구름문, 당초문, 기하학문양을 제외한 화염문, 천상문양, 산 · 나무문양, 서수 · 서조문양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연구방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는 대부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지조사 관찰이 불가능한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문헌, 및 화집, 관련 VTR 등의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나타난 벽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장식문양의 종류

장식문양이란 무덤의 벽면이나 천장 그리고 각종 구조물에 그려진 장식을 목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인물 풍속화(人物 風俗畵)나 사신도(四神圖)와는 다르게 분류되는 문양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염문, 천상문양⁴⁾, 산 · 나무문양, 서수 · 서조문양이 표현된 고분벽화는 집안지역, 황해도,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확인한 50기(基) 고분벽화 중 24기(基)였으며 문양이 총 48개로 나타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중에서 4세기 장식문양은 총2개의 무덤에서 3종류가 나타나고, 황해도에서는 3종류, 평안도에서는 1종류, 집안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세기의 장식문양의 갯수는 총13개의 무덤에서 총 27개의 장식문양이 나타났는데 평안도 8개의 고분에서 13개, 집안지역은 4개의 고분중에서 13개의 문양이 나타났다.

6세기의 장식문양의 갯수는 총 9개 무덤에서 총 17개의 문양이 나타나는데 평안도 지역은 6개의 고분에서 10개, 집안 지역은 3개의 고분에서 7개, 황해도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5·6세기 평안도 · 집안 지역의 장식문양은 4종류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중 4종류의 문양을 갖고 있는 고분은 5세기의 평안도, 덕흥리고분과 집안지역의 장천 1호분, 무용총 등으로 나타난다.

<표 1> 시대별 지역별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

시기	지역	문양종류 무덤명	화염문	천상문양		산.나무문양	서수.서조문양
			화염문	일.월문양	비천문양		기린, 사슴, 비어, 천추 천마, 인두수, 서조, 지신
4세기	황해도	안악제1호분	0	0			0
	평안도	감신총	0				
5세기	평안도	황해도	안악제2호분			0	
		덕흥리고분	0	0		0	0
		약수리고분		0		0	
		팔청리고분	0				
		대안리제1호분	0				
		쌍영총		0			
		덕화리제1호분		0			
		덕화리제2호분		0			
	집안	천왕지신묘			0		0
		장천1호묘		0	0	0	0
		각저총	0	0	0	0	0
		무용총	0	0		0	0
6세기	평안	삼실총			0		0
		개마총		0			
		진파리4호분				0	
		진파리1호분		0		0	
		내리1호고분		0			
		강서중묘		0		0	
	집안	강서대묘			0	0	0
		통구사신무덤		0			
		오회분4호묘		0	0	0	
		오회분5호묘	0	0		0	
합계			8	17	5	11	7

1. 화염문(火焰紋)

고구려 무덤의 내부에는 현실을 나타내는 벽면과 내세 혹은 천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천장이 어우러져 일종의 소우주(小宇宙)적인 공간을 형성한다⁵⁾. 이 내세와 현실을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로서 도리가 존재한다. 화염문은 대개 이 도리(道里)⁶⁾의 윗부분 천정부분에 삼각형상으로 일렬의 교호(交互)방식으로 나타나는 장식문양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문양이다.

화염문이 어떤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특정한 건축이나 불상광배(佛像光背)에서 나타나는 예에서도 알 수 있는데 중국 고대의 오행설에서는 불(火)은 남방을 맡는 5행의 하나라고 하였다. <後漢書>에는 "화염은 천지를 밝힌다."라고 하였으며 또 "불은 수인씨(燧人氏)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바라문교나 조로아스트교 등에서는 불을 신화하여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 건축이나 불상에 장엄한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서기 400년경의 중국 불상의 화염형 광배이다.⁷⁾

"곤륜산 정상에는 장엄 화려한 궁전이 있어 황제의 지상(地上)의 도성(都城), 즉 전체의 행궁(行宮)이 세워졌는데 그 남쪽에는 밤이면 온통 화염에 빛나는 불빛에 싸인다"라고 주장하는 설화적인 요소에서도 화염문을 찾아 볼 수 있다.⁸⁾

각저총의 화염문(사진 1)은 현실 네 귀퉁이의 도리 위 천정부분에 적색과 흑색의 삼각형 화염문이 한줄의 교호방식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감신총, 덕흥리 고분, 대안리 1호분, 그리고 팔청리 고분의 화염문은 각저총과 비슷하게 고분의 천정도리 윗부분에 교호방식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오회분 5호묘의 화염문(사진 2)은 귀갑문의 변형인 연봉오리의 열개 속에 나타난다. 여기의 화염문은 다른 벽화에서 나타나는 삼각형의 화염문이 아니라 사실적이면서 단순화 된 화염문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악 제1호분의 화염문(사진 3)은 천장고임에서 동심원과 함께 등장하는 것과 화염문을 중심으로 양옆의 한쌍의 봉황, 인면조신(人面鳥身)날개가 달린 인록(人鹿)과 비어(飛魚)등의 이형동물과 함께 표현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불교적인 종교 세계와 가공적인 모습들을 통해 고구려인의 예술적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2. 천상문양

1) 일(日)·월(月)문양

무덤 천장에 7개의 성좌와 북두칠성, 심수, 위수 등과 일·월 등을 그려 넣어서 천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류가 농경생활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던 경천 사상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⁹⁾. 중국고대의 신화에서는 화기(火氣)의 정은 태양이 되었고 수기(水氣)는 달이 되었으며 일·월의 넘친 정이 성신(星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태양은 양(陽)의 주인이며 달은 음(陰)의 본이라 하였다¹⁰⁾.

각종 유물과 고분벽화에서는 해는 둥근 원 안의 삼족오(三足鳥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가 한 마리 있고, 달은 원 안에 섬여(蟾蜍; 두꺼비)가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대 신화 중에서도 '셋'이라는 숫자와 연관되는 신앙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단군 신화에서의 삼위태백(三危太白 삼위는 3개의 높은 산이란 뜻으로 해석되고 있음), 천부인¹¹⁾(天符印, 대개 바람, 비, 구름의 신을 거느린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많음)등이 그러한 예로 삼족오는 닭이 이상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일출할 때 천계가 울면 천하의 닭이 모두 따라 울었다."고 하는데 이 천계는 금조(金鳥) 금계(金鷄) 적조(赤鳥)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 금계 금조 등은 天(천)의 사상을 의미하고 있다¹²⁾고 한다.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는 달의 정으로서 광휘임조(아름답게 빛나는 빛)를 의미하고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Sumer)문화에서도 광휘임조를 뜻하는 촛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¹³⁾ 또 월상에는 두꺼비만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두꺼비와 함께 토끼가 등장하는 것도 있다. 이 토끼의 형상은 계수나무 아래에서 약방아를 찧고 그 옆에 두꺼비가 엎드려 있거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매우 해학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달 속의 토끼와 계수나무의 전설은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역시 불교의 전래와 함께 들러온 것이라 생각된다¹⁴⁾고 하였다.

안악1호무덤 현실 천정고임 서편과 동편 삼각석 밀면에 표현된 해와 달은 삼족오와 두꺼비의 모습은 안료가 심하게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은 해가 동편에 달이 서편에 나타나지만, 이 고분의 경우는 해가 서편에 달이 동편에 표현한 특이한 경우인데 이것은 피장자(被葬者)의 장례일시가 음력보름날 해가 하늘 서편에 달이 동편에 있는 것에서 연유한 듯하다¹⁵⁾고 하였다.

약수리 무덤의 일·월문양은 현실 동벽 벽화의 청룡, 오른쪽에 태양과 별이 나타나고, 현실 서벽 벽화의 백호 왼쪽에 달을 상징하는 초록빛 원이 있고 가운데 두꺼비가 있는데 일·월문양은 고풍(古風)스럽고, 솜씨가 서툰 초기의 모습이다.

덕흥리 무덤 전실 천장벽화 동쪽에는 삼족오가 있는 해, 서쪽에는 두꺼비가 있는 달이 사냥도 속에 있다.

각저총의 일·월문양(사진 4)은 현실천정 동쪽에는 해, 서쪽에는 달을 배치하였다. 붉은 빛 해 안에는 뒤로 길게 뻗어나간 공작형 벼슬이 달린 검은 빛 삼족오가 서 있고, 두꺼비가 등을 보이며 엎드려 있는데 원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일문양은 도식적인 표현을 볼 수 있고, 월문양의 두꺼비는 쌍영총의 상보다 훨씬 고풍(古風)스럽고 솜씨가 서툰 초기의 모습이다.

무용총 현실천정벽화에 나타난 붉은 빛 해 안의 공작형 벼슬 삼족오는 벼슬의 길이가 각저총의 것보다는 짧으며 벼슬머리 부분에는 둥근 돌기가 있다. 그리고 흰빛 달빛 속의 두꺼비는 각저총의 것

과 비슷하고, 마치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장천 1호 무덤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현실 천정 막음돌에 별자리 배치도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대각선으로 구획하여 일 월상과 북두칠성 2좌를 배치하였다. 해에는 삼족오를 나타내었고 달에는 두꺼비와 토끼가 방아 찹는 장면이 있다.

쌍영총의 일·월문양은 현실 천장 삼각고임 제1단의 동쪽삼각석의 해와 서쪽 삼각석 밑에 위치한 달문양이 있다. 일문양에서는 좌우로 날개를 펼쳐 호형을 이루었고, 등을 보이며 엮드린 달 속의 두꺼비는 머리를 왼편으로 들고 화염을 뿜어내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는데 두꺼비가 이런 영물(靈物)로 표현된 것으로는 유일하다. 특히 이 일상문은 진파리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투각관형금구(金銅透刻形金具)¹⁶⁾에서의 일상문과 매우 유사하다.

덕화리 제1호무덤 현실 천정 벽화 속의 동쪽과 서쪽의 일·월문양은 귀갑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묵선으로 바깥 원을 붉은 선으로 안 원을 그린 해 안에는 공작형 벼슬을 지닌 삼족오가 날개를 접은채 서 있으며, 달 속에는 엮드린 두꺼비와 옥토끼가 들어 있다.

덕화리 제2호 무덤의 일·월문양(사진 5)은 덕화리 1호분과 같이 귀갑문 속에 나타난다. 해와 달의 형태 및 상징요소도 덕화리 1호분과 같이 삼족오의 머리 위 벼슬은 끝이 곤충 더듬이처럼 크게 달려 있으며 날개 끝은 몸에 붙어 있다. 엮드린 두꺼비는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옥토끼는 앞발을 들고 사람처럼 앉아 있다.

천왕지신총 현실 천정벽화 동쪽에는 해가, 서쪽에는 원형안을 청매피문(青梅皮)¹⁷⁾으로 메운 달이 있는데, 이것은 달과 물을 관련시킨 것이며 역시 중국적인 관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개마총 현실 천정 고임 제2단의 서벽 천장 받침에 달문양(사진 6)이 있는데 토끼가 방아를 찹고, 그 뒤에 두꺼비가 엮드려 있는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전기(前期)의 도식적인 것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다.

통구 사신무덤 현실 동벽 천장 제2단 받침에 그려진 일·월문양은 복희, 여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회분 제4, 5호묘와는 달리 이 사이에

나무의 표현이 없으며 日神(복희) 나래웃의 깃 끝이 위로 뻗어 펴리며 月神(여와) 나래웃은 아래로 숙여져 있다. 이것은 도교적인 경향이 짙은 것으로 그 주위의 선인과 기린, 용 등에서도 도교적인 요소를 강하게 시사해준다. 이는 후한대의 석굴화상(石闕畫像) 화상 석관(畫像棺) 북주(北周)의 석곽 화상등의 형식과 유사하다¹⁸⁾. 또한 지금까지 보여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일·월문양이 천장고임 제1단 동서면의 해에는 삼족오의 등과 달에는 훼손되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등을 보이며 엮드린 두꺼비가 있다.

오회분 제4호묘의 일·월문양의 기본형태는 오회분 5호묘의 것과 유사하다. 현실 천장고임 제1단의 서북면에 일신(복희)이 받쳐준 해안의 삼족오와 월신(여와)이 받쳐주고 있는 달 속의 두꺼비는 사실적이 아니라 대략적인 형태로(사진 7) 나타난다. 또한 현실 천장고임 제3단 동북면과 서남면의 해와 달에는 삼족오와 두꺼비가 있다(사진 8). 이 해안의 삼족오는 날아오르려는 듯한 자세이며 끝이 말린 벼슬이 머리위로 길게 뻗어 올랐으며 펼친 나래는 현실(玄室)의 주작(朱雀)을 연상시킨다. 서남면의 두꺼비는 몸체에 비해 가늘고 힘없는 다리로 표현되었다.

진파리 제1호 무덤의 일·월문양은 현실 천정의 중앙부에 나란히 배치했다. 끝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흰 불꽃모양장식으로 둘러싸인 해안에는 삼족오가 서 있다. 나래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려는 자세와 삼족오의 형태적 특징이 공작류의 새와 비슷하다. 해에서와 같은 형태의 불꽃모양 장식으로 둘러싸인 달 속에는 계수나무와 옥토끼 두꺼비가 들어 있다. 계수나무 왼쪽의 옥토끼는 불사약을 찹고 있고, 오른쪽 아래의 두꺼비는 사람처럼 서 있는데 옥토끼와 함께 불사약을 찹고 있는 듯하다.

내리 1호무덤 현실 서벽 천정의 달은(사진 9)은 원을 굽게 두르고, 원 안에는 좌측에 큰 수목이 배치되고 그 아래에 토끼와 두꺼비가 그려진 것인데 많이 손상되어 토끼의 발과 두꺼비의 모습만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수목은 역시 전기 계수나무와는 달리 매우 사실적으로 세련된 구조를 보인다. 현실 남벽 천장 평행고임 벽화에

나오는 둥근 동심원무늬¹⁹⁾는 삼죽오가 나오지 않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일한 고구려벽화 중 하나이다

강서중묘의 일·월문양은 현실 천정 석면 한가운데 커다란 연꽃을 그리고 연꽃의 동쪽에는 해, 서쪽에는 달, 남쪽과 북쪽에는 봉황 네 모서리에는 화려한 인동연꽃의 1/4씩을 그렸다. 구름으로 둘러싸인 붉은 빛 해안에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삼죽오를 그렸는데 날아가는 모습이 기러기를 연상시킨다. 달속의 두꺼비는 타원형의 몸체와 짧은 네 다리로 표현되었으며 곤충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퇴화되었다. 달의 새로운 상징요소인 옥토끼는 약절구와 함께 나타나면서부터 강서중묘에서는 다시 사라졌다.

2) 비천문(飛天紋)

天上의 仙人으로 天人을 지칭하며, 하늘을 날아오는 모습을 묘사한 문양이다. 서방(西方) 천인들의 모습은 등뒤 어깨 부분에 크고 작은 새의 날개(鳥羽)를 달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천인이 천상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상에 사는 인류로서는 대조적이므로 삶과 죽음의 이율배반적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천인을 범어로 Apsara, 또는 비천(飛天), 악천(樂天)이라고 하여 불교경전에서는 천상의 요정을 뜻하였다. 허공을 날아다니며 악기를 연주하고, 하늘 꽃을 흩날리며, 항상 즐거운 지경에 있지만 그 복이 다하면 쇠진함의 괴로움이 생긴다고 한다²⁰⁾. 도교에서는 비천을 우화등산 백일승천(羽化登山 白日昇天) 등으로 표현하여 비승(飛昇)이라고도 한다. <道敎天變羊典>에 의하면 ‘羽化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인은 飛昇化에 능하므로 선을 이루는 것을 羽化라 하며 비승은 도를 닦는 선을 이루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²¹⁾.

이 비천문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주악상(奏樂像)과 공양상(供養像)으로 대별(大別)되는데 중국 위(魏)와 육조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²²⁾으로 인물풍속화와 사신도 고분에서 주로 나타난다.

안악 2호분 현실 동벽 비천문(사진 10)은 진한

진주 빛의 원광 속에서 머리에 보관을 쓰고 화반을 받쳐 들고 연꽃을 뿌리는 모습으로 전형적인 불교의 공양상이다. 반나체의 상반신의 부드러운 선은 거침없이 아름답고, 미소를 띤 표정은 매우 우아하다. 바람에 날리는 천의(天衣)는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화려하게 돋구어 낸다. 물골법과 구름법을 함께 써낸 묘사법은 세련되었고 우아하고 가느다란 선은 극히 원숙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회화기법에 의한 비천문은 고구려벽화 무덤 속에서 최고 걸작의 하나²³⁾로 뽑히는 높은 예술적 향기를 풍기고 있다.

장천 1호분의 전실 동쪽 천정벽화에 비천문 공양장면, 보살상, 연화화생문, 연화문 등 많은 불교적인 그림과 더불어 비천문이 나타나는데 피장자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20개의 비천을 그렸다²⁴⁾. 이 고분 비천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하지만 착용한 점이다.

삼실총의 천정벽화에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문은(사진 11) 주악상으로 완함(阮咸)을 연주하는 천인의 자세가 탄력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오회분 4호묘 현실 천정의 주악상은 장고치는 비천과 사현금 타는 비천상인데 천의 자락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형상이나 몸체 묘사를 ㄴ자로 처리한 것 등은 중국 육조 시대의 비천상과 흡사하나 구름을 덩어리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몇 개의 선을 반복함으로써 묘사한 것은 고구려의 독자적 표현양식이다²⁵⁾.

강서대묘의 현실 북쪽 천정부에 4명의 비천(사진 12)중 앞의 두 비천은 공양상으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왼손에 검은색 화반을 들고 오른손으로 화반에 담겨있는 갈색 꽃잎을 뿌리고 있으며 천의를 바람에 날리면서 구름사이를 나는 모습이다. 풍만한 얼굴에 약간 비대하게 보이는 보라빛 반나체의 비천은 몸에 붉은 질은 갈색치마를 입고 다채롭고 화려한 녹색 천의 자락을 오른손에 걸치고 있다. 뒤의 두 비천은 기악상으로 앞의 두 비천과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피리를 부는 모습을 나타낸다.

3 산·나무 문양

세계 여러 곳의 신화에 나오는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며, 만물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고, "샤머니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나무의 풍작, 기설(祈雪), 안녕, 질병까지도 좌우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산과 더불어 나무는 매우 신성한 것으로 예전 사람들은 천상의 신들이 지상으로 오르내릴 때, 또는 인간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를 때 어떤 것을 이용했을까를 생각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여주는 것을 우주목(宇宙木)이라 한다. 우주의 나무라 하는 것은 우리 단군 신화에서의 신단수를 생각하게 하고 또 불가에서 석가가 나무 아래서 도를 깨달았다는 보리수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⁶⁾. 고구려 건국설화의 시조 주몽이 큰 나무아래서 어머니 유화가 보낸 비둘기를 만난다는 이런 신화를 통해 신과 사람을 잇는 사다리로서의 성스러운 나무에 대한 신앙을 읽을 수 있다²⁷⁾.

산은 고대 산수화에서 강, 나무와 돌 등의 자연경관과 함께 그려졌다. 이것을 향유하고 있는 인물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친화관계를 나타내고 보는 사람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매체로 그려졌고, 회화의 여러분야 중에서도 산악문이나 수목문을 표현한 넓은 의미에서의 산수화는 5세기초 무렵에는 수렵도(狩獵圖)의 배경으로 묘사되었다²⁸⁾.

덕흥리무덤의 산·나무문양은 전실 동쪽천정에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광경 속에 나타난다. 고구려 수렵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물, 동물들의 표현이 고풍(古風)스럽고 서투른 솜씨지만, 산문양들이 고분벽화에 처음으로 표현되어 산수화의 시원(始原)²⁹⁾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나무 판자를 오려서 일직선상에 늘어놓은 듯한 평면적 산문양들과 산봉오리에서 있는 나무들도 단순한 모습이다. 또 다른 나무문양은 현실 서벽을 4등분 속에 나무에 말을 묶은 그림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실 천장의 나무문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서, 나무형태가 서로 엉켜 있고 나뭇잎이 가지 위에 달려 있는 모습으로 각저총과 무용총의 나무형태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약수리 무덤의 산·나무문양(사진 13)은 전실 남벽에 그려진 사냥도 속에 나타난다. 이 산문양에는 주홍색 검은색 노랑색으로 표현하였다. 산악위의 나무에는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한그루의 나무에는 새둥지가 보인다. 여기의 산·나무문양은 덕흥리 무덤보다는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산의 이미지를 기하학적인 곡선을 연속적으로 사용해 능선을 표현했다. 나무문을 아주 단순한 선으로만 표현했다.

각저총의 나무문양(사진 14)은 현실 동벽에 씌름하는 광경 속에 있다. 이 나무는 벽면을 이등분하여 씌름장면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무 위에 네 마리의 검은 새가 앉아 있다. 그리고 현실 남벽의 나무문양은 나무의 분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아라베스크의 대칭을 이룬 도식적인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를 '연리수'(連理樹) '연리주'(連理柱)라 하고, 우주의 생성이 음양에 의해 이루어짐을 상징하고 화목한 남녀관계를 비유한다³⁰⁾. 그래서 나무 가지가 서로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고 분지의 끝에는 빗자루 같이 여러 줄기로 갈라져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신선한 나무에 대한 수목신앙이 반영되었고 작은 잎으로 뭉쳐진 솜뭉치 같은 나뭇잎이 가득 달려 있는데 이런 수목의 형식은 중국 한대 회화의 전통³¹⁾을 이어 받은 것이다.

무용총 현실 서벽 수렵도에는 큰 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다. 그리고 뒷편으로 산들이 늘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의 넓은 대지 위에서 무사들이 달려 사냥을 하고 있다. 여기 수렵도에서는 고구려 미술의 특성인 힘과 동성(動成)을 볼 수 있고, 능숙한 인물과 동물의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산문들은 굽고 가는 곡선들로 평면적-상징적으로만 묘사되어 있어 산·나무문양은 5세기 덕흥리 벽화고분의 산들보다는 훨씬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들의 색상이 근경부터 원경에 이르도록 백색 적색 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적 색채 원리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리고 나무의 문양은 각저총의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장천1호분 전실북벽 상부의 나무문양은 보리수(菩提樹)문양이다. 오른쪽 윗부분 나무 아래에는

주인공이 서 있고, 옆에는 시녀가 따르고 있다. 이 나무는 활엽, 침엽, 열매가 함께 자생하는 성수로, 무용총 수렵도에 보이는 나무보다 훨씬 완벽한 모습을 갖춘 발전된 모습이다. 또한 수렵장면 속에 나무문양이 나타난다. 나무의 모습은 각저총과 무용총의 나무의 모습과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다.

진파리 제 4호 무덤의 산·나무문양(사진 15)은 현실 동벽에 있는 연못 벽화의 좌우에 높은 산을 배치하여 무성한 나무문과 기암절벽 속에 연못을 그렸다. 이 연못은 멀리 보이는 나무들을 크게 그린 것이나 장식적 제약성을 남기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오랜 풍경화 작품³³⁾의 하나로써 회화사상 큰 의미를 남겼다. 그리고 소나무의 표현은 몰골법(沒骨法)에 의한 동양 특유의 묘사법으로 다소 생동감이 결여되었지만,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물로 대표된다.

진파리 제1호 무덤의 나무문양(사진 16)은 북벽 벽화 현무(많이 손상되어 잘 안보임)의 좌우대칭(사진 좌 우)이 되는 위치에 한 쌍의 큰 소나무문양이 표현되었다. 이것은 몰골법에 의한 연필로 그린 사실적인 묘사로서, 솔바람 소리가 흔들려 들리는 것처럼 묘사되었고, 굽은 선과 가는 선의 배합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졌는데³⁴⁾ 한 그루의 나무가 밑등에서 2줄기로 갈라져서 위로 뻗어 올라가고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분지의 끝에 다시 작은 가지를 뻗어 있을 표현한 것이 활달분방한 선과 생생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지금까지 벽화에서 보여준 소나무 중 가장 세련된 기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벽화에서의 산수화는 주로 주제의 보조적인 위치에 놓였으나, 진파리 제1호분의 수목문은 그러한 제약을 뚫고 독립한 장르로서 그려진 회화형식의 대표작품으로 주목되며 또한 상징풍경화로서도 개성적이다.

오회분 제4호무덤, 오회분 제5호무덤의 나무문양은 두 고분의 현실 천장벽화 속의 여러신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생동감이 넘치는 신들과 조화를 이루는 나무도 동적으로 활기에 넘치는 운동감에 사실성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갈색의 밝고 선명한 색상이 천하지 않는 우아함을 지니고 있는 고구려 후기고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초·중기의 몰골법에 의한 표현은 계승되어 진다³⁵⁾.

강서중묘의 산문양은 현실 북벽 벽화의 현무 아랫부분에 나타난다. 이것은 초목이 없는 바위산으로 황량한 풍경으로 펼쳐져 있다. 바위산은 선묘를 기초로 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무덤의 재료인 화강암과 난색계열의 색상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온화하고 우아한 느낌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서대묘의 산나무문양(사진 17)은 현실 서쪽 천정벽화의 학을 탄 선인 원편에 나타난다. 이것은 강서중묘에서와 같은 화강암과 난색계열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함께 하고, 강서중묘보다는 더 치밀하고 섬세한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4. 서수(瑞獸)·서조(瑞鳥) 문양

서수(瑞獸)·서조(瑞鳥) 문양에는 기린, 봉황, 용, 사자, 사슴, 천마(天馬) 등과 기타 괴수(怪獸), 괴조(怪鳥), 일각수(一角獸) 등 약 10여종이 있으며 이러한 문양요소는 중국 한 육조전국 시대의 와전(瓦塼)과 화상석에서 도입되거나 발전한 것으로 사후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자로서 죽은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천인이나 선인이 타고 다니는 부속물로서 천계를 나타낸다.

안악1호분의 기린문양(사진 18)은 고구려 고분 벽화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서수문이다. 기린의 모습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세이며, 머리에는 기린의 가장 큰 특징인 한 개의 뿔이 동그랗게 튀어나오게 묘사되어 있다. 거친 선과 신체비례에 어울리지 않는 큰 날개의 표현 등은 상징적인 동물표현이다³⁶⁾.

현실 제2단 평행고임부에는 날개와 발이 달린 비어(飛魚)와 날개 돌친 천마(사진 3의 아랫부분)가 불문양의 양옆에 나타난다. 이 비어는 덕흥리 고분벽화의 비어보다 훨씬 사실성 있게 그려져 있고 물 속에서 뛰어오르는 운동감을 강하게 풍긴다. 천마는 날개가 달려 있어 서아시아 및 그리스 신화의 페가수스를 연상시킨다. 옆의 불꽃에 비해 크기도 작아 장난감처럼 앙징 맞은 느낌을 준다.

현실 천정고입 동편 오른쪽에는 사람머리를 가진 인두수(사진 19)가 나타난다. 사람 머리 부분 일부가 남아 있지만 얼굴 세부는 알아보기가 어렵고, 짐승 몸이 덕흥리 벽화의 삼성과 닮았다. 그 몸은 양(羊)과 같고 사실적인 인면(人面)의 형상은 중국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괴수들과 비슷하게 묘사되는데 다른 고분에는 없는 특수한 형태이다.

삼실총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특이한 3개의 묘실(三室) 구조로 알려진 삼실총은 제2묘실 북면 4층 받침석에 봉황과 함께 기린이 나타난다. 이것은 앞발과 뒷발을 각기 한발씩 땅을 딛고 서 있으며 나머지 두발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두부(頭部)는 한 개의 뿔이 솟아있는 것이 천마와 구분되고 있으며 목뒤로 갈기가 날카롭게 휘날리고 있다. 날개는 운익형(雲翼型)의 긴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꼬리는 한대의 주벽부의 꼬리처럼 끝에서 당초문처럼 말아올려지고 있다³⁷⁾.

이실(二室) 서면 5층 받침석에 사슴(天鹿)을 그려 놓았는데 두부는 천마총의 천마를 연상케하는데, 자세는 북면의 기린과 같은 자세이며 머리에는 사슴뿔이 솟아 있는데, 뿔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은 특이하다.

삼실(三室) 천정 받침석에는 여러 종류의 신수(神獸), 인두조수, 서조들이 등장하는데 서조는 날개깃과 꼬리깃 몸통등에 짧은 털이 몇 가닥씩 뺏어나와 이 새가 상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해석된다.

무용총의 현실 천정에는 기린, 서조, 인두조수가 나타나는데 기린은 한쌍씩 그렸으며 암컷에는 뿔이 없고 몸은 수컷과 비슷하게 표현하여 둘이 서로 다르게 묘사하여 자웅(雌雄)을 나타낸 것 같다. 높게 솟은 뿔, 네 다리를 짝 벌린채 꼬리와 몸의 털을 곤두세우면서 달리는 모습은 생동감이 넘친다 이것은 고구려인의 호탕한 기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날개의 표현은 삼실총의 기린과 마찬가지로 앞다리에서 간략하게 뻗어나오는 기익형(氣翼型)³⁸⁾의 날개를 표현하고 있다.

인두조수는 얼굴부분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진 상태로, 천왕지신총의 천추와 생김새가 많이 닮은 점으로 보아 이 역시 천수 일 가능성이 높고, 날개

를 넓게 펼친 모습이 화려하게 느껴진다.

서조는 부리에 문 붉은 열매가 사당(沙棠)이라면, 붉은 수컷, 황은 암컷을 가르킨다. 한번 날면 구만리를 난다는 전설상의 새이다. 깃털도 빠뜨린다는 약수(弱水)를 건너려면 봉황조차도 사당이라는 열매를 물고 날아야 한다는 약수는 곤륜산을 둘러싼 강의 이름이다.

장천 1호분의 전실 천정부 동측 첫번째 받침석에는 고개를 들고 질주하는 기린을 그리고 있다.

천왕지신총의 현실 북쪽 벽화에는 지신이란 문양과 현실 동북쪽 천정에는 천추 즉 천왕이 있어, 이들을 합쳐 천왕지신총이라 불리워진다. 그리고 천추 머리 앞에는 천추(天秋)라고 쓴 글이 있고, 머리에 쓴 관의 형태가 덕흥리 벽화분의 천추와는 다른 형태이며, 무용총의 인두조수와 많이 닮았다. 이것의 몸을 원형으로 돌려 두 머리 부분이 마주보는 자세이다. 두 얼굴은 정면을 향했다. 몸을 틀면서 굴곡진 부분을 선으로 처리하여 몸의 부피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 지신이란 땅의 세계를 안정시키려는 힘이 의인화된 것이다. 덕흥리 고분의 지축(地軸)과 같은 존재이다³⁹⁾.

덕흥리 고분 전실 천정부에는 비어, 두개머리를 가진 청양, 불을 밟고 지나가는 불새인 양광, 깃발을 든 옥녀와 소반을 든 옥녀 뒤에는 천추, 만세, 사람의 머리를 가진 인두조수, 박위, 천마, 몇개의 뿔을 가진 노루와 말 같아 보이는 영양, 부귀, 하조, 길리등 가장 많은 서수.서조문양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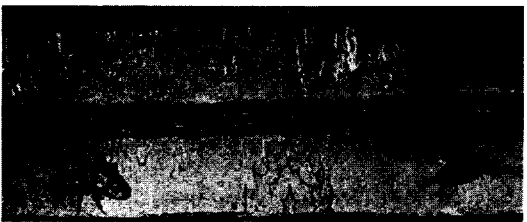
강서대묘의 기린문양은 현실 천정에 봉황과 함께 그려져 있다. 기린은 가슴에 모두 날개가 달려 있고 머리 중앙에 뿔 한개가 달려 있다. 네 다리를 앞뒤로 쭉 뻗치고 혀를 내밀고 질주하는 모습은 이제까지의 기린과는 다른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머리의 뿔은 끝이 동그랗고 목덜미의 갈기와 꼬리털은 바람에 휘날리며 날고 있다. 두 마리의 기린은 자웅을 의식한 듯 두부가 다르며 몸의 중간에도 반점이 또한 표현되어 있다.



<사진 1> 각저총 (5C) 현실북쪽벽화의 불문양
(조선일보사, 집안고구려고분벽화 1993 pp. 144-145)



<사진 2> 오회분 5호묘(6C) 현실벽면벽화의 불문양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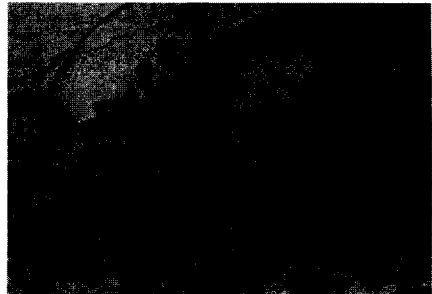
<사진 3> 안악제1호무덤(4C) 현실남쪽벽화의 불문양과 비어와 천마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 No.36)



<사진 4> 각저총 (5C) 현실천정벽화의 일.월문양
(조선일보사, 집안고구려고분벽화, 1993 pp. 14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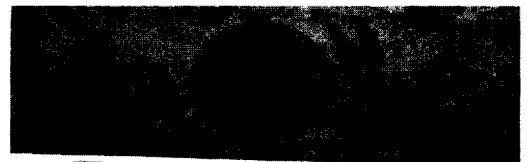
<사진 5> 덕화리 제1호분(5C) 현실 천장고임벽화의 일.월문양(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 No.146, 147)



<사진 6> 개마총(6C) 현실 천장고임 제2단의 월상문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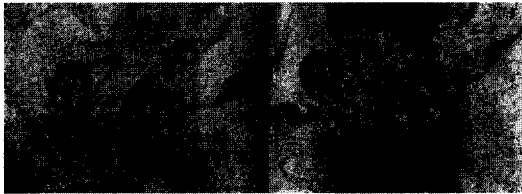
<사진 7> 오회분 4호묘(6C) 현실천정벽화의 일신과 달신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 221)



<사진 8> 오회분 4호묘(6C) 현실천정벽화의 일.월문양
(일문은 고구려문화전 日本 1985 p. 78)
(월문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 222)



<사진 9> 내리1호무덤(6C) 현실서쪽천정벽화의 일.월문양 (고구려문화전 日本 1985 pp.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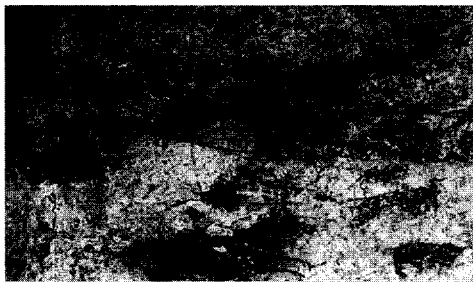
<사진 10> 안악2호분(5C) 현실동벽벽화의 비천문양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p. 240-241)



<사진 11>삼실총(5C) 천장벽화 속의 비천문양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동경 1985 No.209)



<사진 12> 강서대묘(6C) 현실북쪽천정벽화의 비천문양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p. 268-269)



<사진 13> 약수리무덤(5C) 전실남쪽벽화의 산.나무문양
(조선일보사, 집안고구려고분벽화 1993 p. 147)



<사진 14> 각저총(5C) 현실동쪽벽화의 나무문양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 No.40)



<사진 15> 진파리 4호부덤(6C) 현실 동벽 연못벽화의
나무문양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 No.158)



<사진 16> 진파리 1호무덤(6C) 현실북쪽벽화의 나무문양
(조선 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 p. 193)



<사진 17> 강서대묘(6C) 현실 서쪽천정벽화의 나무문양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 No.197)



<사진 18> 안악 1호분(4C)의 기린
(조선화보사, 고구려고분벽화 1985 No.37)



<사진 19> 안악 1호분(4C)의 인두수
(조선화보사, 고구려 고분벽화 1985 No.38)

Ⅲ. 장식문양의 시대별·지역별 비교 분석

1. 화염문(火焰紋)

고구려고분에 나타난 화염문 형식은 주로 화염, 즉 불꽃 같이 위로 뻗어 삼각 형상을 이룬 장식문양 즉 인동문 형식을 따르고 있고, 천정 벽화가 시작되는 도리 윗부분과 벽화 안의 장방 위 지붕에 화염문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4세기 황해도 안악제1호분의 화염문은 단순한 곡선의 형태로 된 화염문을 볼 수 있고, 4세기 평안도 감신총과 5세기의 집안지역의 무용총, 각저총, 평안도의 덕흥리, 대안리1호 무덤, 팔청리, 무덤에서의 화염문들은 거의 유사한 삼각형의 형태로 도리 위의 천장에 표현한 점으로 비교적 내세관인 고구려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고, 6세기 집안지역의 오회분 제5호묘에서 나타난 불문양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삼각형 형태에서 벗어나 사실적인

느낌이 갖든 화염문을 귀갑문의 변형인 연봉오리의 열개문양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염문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구려인의 불교적 내세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집안지역과 평안도 지역의 삼각형의 화염문으로 공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황해도 지역의 사실적인 모습의 화염문과는 차이가 있다.

2. 천상문양

1) 일(日)·월(月)문양

일·월문양은 연구한 24기(基)의 고분벽화 중 17기에서 나타나고 4-6세기에 걸쳐 나타나며 장식문양중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천정벽화나 사신도와 함께 나타나며, 해 안의 삼족오와 달 속의 두꺼비의 모습이 둥근원 안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초기(5세기)의 인물풍속이 주제로 하는 고분벽화에는 중국한대의 일·월문양에서의 구도적인 전통, 즉 해 안의 삼족오, 달 안의 두꺼비나 토끼를 보여주고, 후기(6세기 이후)에는 사신도를 주제로 한 벽화에서 대부분 나타나며 일신과 달신인 복희와 여와가 나타난다.

초기 5세기 평안도 약수리, 덕흥리 고분에서의 고풍(古風)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에서 5세기 집안지역 각저총과 무용총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장천1호분에서는 북두칠성과 함께 나타나고, 평안도의 쌍영총에서는 이들 보다 좀더 사실적인 일월문양을 볼 수 있고, 5세기 집안 장천 1호분과 5세기 평안도 덕화리 제1호분, 덕화리 제2호분, 개마총에서는 월상안에 두꺼비와 토끼가 함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후기(6세기 이후)에는 일·월문양뿐만 아니라 일신과 달신이 집안지역 통구사신 무덤,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에서도 나타난다. 6세기 평안도의 무덤에서도 모두 달안에 불사약을 쥔고 있는 토끼의 모습이 두꺼비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내리1호분의 경우에는 큰 수목이 함께 하는 독특함을 가진 것도 있다.

초기(5세기)의 고분벽화에는 중국한대의 일·월상에서의 구도적인 전통, 즉 해안의 삼족오 달 안의 두꺼비나 토끼를 보여주고 후기(6세기 이후)에

는 대부분 일신과 달신인 복희와 여와가 나타난다.

2) 비천문(飛天紋)

비천문은 주악상(奏樂像)과 공양상(供養像)으로 나타나며, 이문양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문양으로, 초기의 비천문보다 후기의 것이 더욱 아름답고 우아한 비천으로 묘사되어 있고, 황해도 지방은 주로 공양상을 묘사하였고, 평안도와 집안지역은 공양상과 주악상을 함께 묘사하는 차이를 보인다.

3. 산·나무 문양

산·나무문양은 4세기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5세기에는 장면과 장면을 분리하는 역할이었으나 점차 후기로 갈수록 장식문양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회화의 한 장르로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며 산문양(5세기)은 초기 평안도와 집안지역의 수렵도 속에 나타나며 후기에는 사신도와 함께 하며 모두 단순한 형태이다.

나무문양은 초기의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바람에 의해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사실적인 나무로

변화하였다.

5세기 평안도 덕흥리, 약수리 무덤의 단순한 형태에서 집안지역의 각저총과 무용총에 나타나는 문양은 중국 한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다. 이보다 좀 더 발전한 형태의 장천1호분의 나무문양은 이들 문양보다 완벽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




6세기 집안지역과 평안지역 나무문양은 지금까지 것과는 달리 색채와 형태 등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회분 4호묘와 오회분 5호묘에는 여러신들과 함께 등장하는 나무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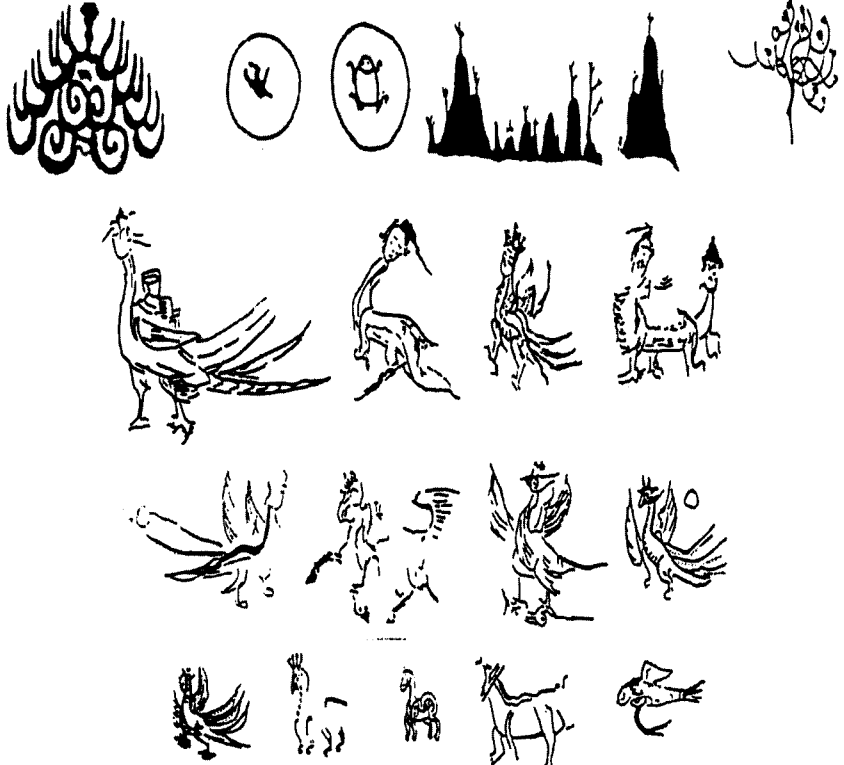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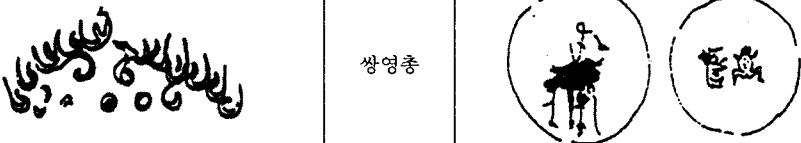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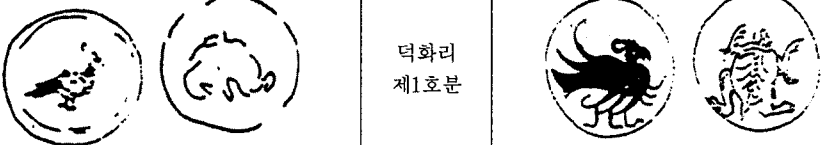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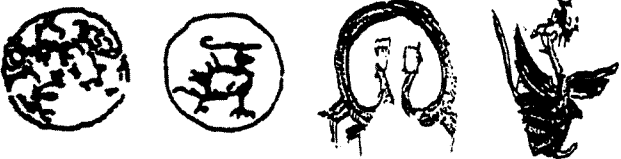
4. 서수·서조문양

서수·서조문양은 덕흥리 고분에서 12개의 가장 다양한 서수, 서조 문양을, 삼실총이 8개, 안악 제1호분이 5개, 총 7기(基)의 무덤에서 32개의 서수·서조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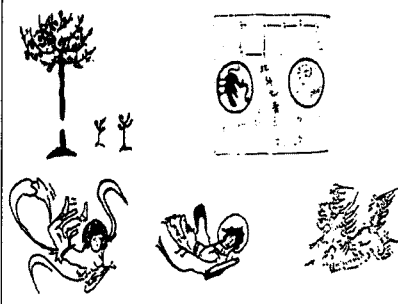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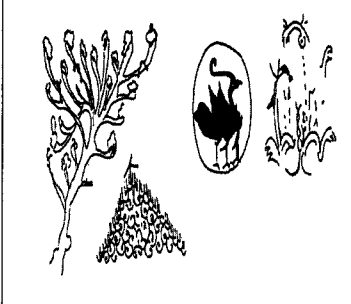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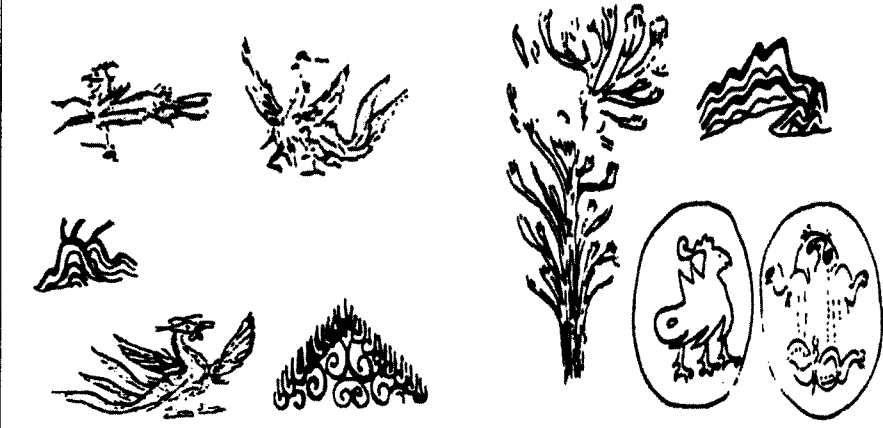

서수·서조 문양 중 기린문양은 초기(4세기말)의 모습에서 후기로 갈수록 더 사실적이고 섬세하며 운동감이 강하게 느껴지게 표현되어 있다.

비어(飛魚)는 4세기 황해도 안악1호분의 것이 5세기 평안지역의 덕흥리 고분의 것보다 훨씬 더

지역	시기 무덤명	4세기
황해도	안악 제1호무덤	
평안도	감신총	
지역	시기 무덤명	5세기
황해도	안악 제2호무덤	

지역	시기 무덤명	5세기	
평안도	덕흥리 무덤		
	대안리 제1호분	쌍영총	
	덕화리 제1호분	덕화리 제1호분	
	천와지 신총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

지역	시기		5세기	
	무덤명			
집안	창천 제1호분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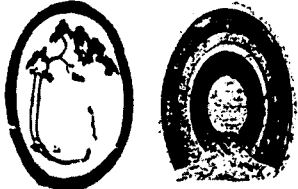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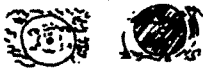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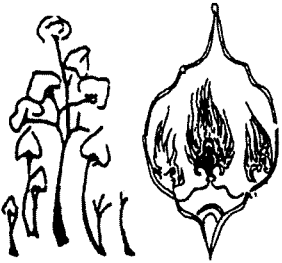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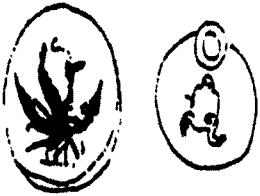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계속)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진다.

4세기 안악 1호분의 사람 머리에 새의 몸을 가진 인두수와 5세기 집안지역의 삼실총과 무용총의 사람머리에 새의 몸을 가진 인두조수와는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5세기 평안도 덕흥리 무덤의 인두조수와는 비슷하다.

천마는 4세기 황해도 안악 제1호분과 5세기 평안도 덕흥리 고분에서 나타나는데 안악 제1호분의 천마보다 덕흥리 고분의 천마가 훨씬더 하늘을 날으는 강한 운동감을 주는 날개의 표현을 나타낸다.

서조는 5세기 집안지역 삼실총과 무용총에 나타나는데 특히 삼실총에는 다양한 서조를 표현하고

지역	시기	6세기		
	무덤명			
평안도	개마총		진파리 4호 무덤	
	진파리 1호 무덤		내리 1호 무덤	
	강서중묘			
	강서대묘			
집안	통구사신 무덤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계속)

있다. 이것은 상스러운 존재의 의미로서 대표되는 것으로 천정부분에 나타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 1>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을 시대별·지역별 정리해 표현한 묘사도로서, 앞으로 현대 패션에서 새로이 해석되어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나 모티브로써 재창조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제시한다.

IV. 結 論

4세기-7세기 초반 평안도 황해도 집안지역의 고구려 고분중 장식문양이 나타나는 고분은 24기(基)이며, 화염문, 천상문양, 산·나무문양, 서수·서조문양등으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평안도 지역이 15개의 고분에서 총 24개, 집안지역이 7개의 고분에서 20개, 황해도는 2개 고분에서 4개의 문양이 나타났다. 시대별로는 5세기 장식문양이 총 13개 고분에서 27개, 6세기에는 총 9개 고분에서 17개, 4세기에는 총 2개의 고분에서 4개로 총 48개의 장식문양이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문양을 나타내는 고분은 평안도의 덕흥리무덤(5C), 집안의 장천1호묘(5C), 무용총(5C)이었다.

이들 문양들은 불교, 도교, 고대 시조나 신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불문양, 비천문양 등은 불교적인 배경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서수·서조문양, 일·월문양 등은 도교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며, 고대의 시조 신화나 설화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산·나무 문양도 있다. 문양들의 모습은 초기보다는 중·후기로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나타났고 4세기의 고풍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이 5세기로 가면서 다양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났다. 6-7세기 초에는 사신도와 함께 나타난 문양들은 섬세하고 세련됨이 가미된 사실감을 강하게 주었다. 그리고 3지역 각각 문양들은 독특함이 있었다. 기본적인 요소는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세계가 국제화 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는 점점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적인 소질과 우수성을 살린 전통 예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문양이 현대 패션 디자인의 한 모티브가 되었으면 한다. 제한점은 실물을 보지 못해 문헌과 그림 자료들을 참고한 점과 고분벽화 자료 분석이 주관적인 점이다.

참고문헌

- 1) 전호태 (1997). 고구려고분벽화연구-내세관표현을 중심으로. 서론 및 1장 참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고구려 벽화의 내용은 주제에 따라 대체로 3-4가지로 분류된다. 북한학자들은 <고구려문화>에서는 1.인물 풍속화, 2.동물화, 3.풍경화, 4.장식화등으로 구분하였고, 주영현(고구려 벽화무덤의 편년에 관한 연구, 1961)은 1.인물 풍속도 무덤, 2.인물풍속도 및 사신도 무덤, 3.사신도 무덤, 4.장식무늬 무덤으로 구분하였고, 박진옥(조선고고학 전서, 1991)은 1.인물풍속도 무덤, 2.인물풍속도 및 사신도 무덤, 3.장식무늬 무덤, 4.사신도무덤으로 구분하였고, 이형구(고구려의 고고문화, 고구려의 벽화, 1996)는 인물풍속도, 사신도, 장식화등으로 구분하였고, 김원룡(한국벽화 고분, 1980)은 1.묘주생활도, 2. 사신도, 3. 장식문등으로 구분하였다
- 3) 임영주 (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장은영 (1995). 문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사신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현숙 (1997). 고구려벽화고분의天井部에 나타난圖像 및 文樣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호태 (1997). 고구려고분벽화연구-내세관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무장 (1998). 고구려 무덤벽화의 구름무늬에 관하여. 조선고고학연구, 2월호
안창현 (2000).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기하학문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論文集.
- 4) 廣邊表丹(1997)는 천상지상문양에 화염문, 일월문, 비천문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저는 화염문을 제외한 일월문, 비천문을 천상문양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廣邊表丹 (1997). 東洋文樣史. 富山房. 東京 pp. 301-322.
- 5) 안휘준 (1998). 고구려고분벽화의 흐름. 고구려발해연구 1, p. 75
- 6) 도리란 건축 가구재(架構材)의 하나이다. 목조 건축물

- 의 골격을 이루는 가구재 중에서는 가장 위에 놓이는 부재로서 그 위에 서까래를 받는 길다란 나무이다. 도리의 단면형은 원형과방형(方形)이 주로 쓰이는데 간혹 팔각형도 쓰인다. 도리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 명칭이 정해지는데 주심도리(柱心道里) 중도리(中道里) 종도리(宗道里) 등이 있고,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상중도리(上中道里) 하중도리(下中道里)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1998). pp. 811-812
- 7) 임영주 (1983). 앞의 책, p. 73
 - 8) 임영주 (1991). 전통 문양 자료집. 미진사. pp. 25-26
 - 9) 임영주 (1983). 앞의 책, p. 78
 - 10) 장기근 (1981). 중국의 실화. 을유문화사
 - 11) 一然. 三國遺事. 一卷
 - 12) 三國遺事, 卷第, 紀異, 高句麗
 - 13) 廣邊表丹 (1997). 앞의 책. pp. 302-305
 - 14) 임영주 (1983). 앞의 책, p. 79.
 - 15) 노현숙 (1997). 고구려 벽화고분의 천상부에 나타난 도상 및 문양연구. 영남대학교. p. 30
 - 16) 임영주 (1983). 앞의 책, p. 84
 - 17) 김기웅 (1981). 한국의 벽화고분. 동화출판사. pp. 98-111
 - 18) 임영주 (1983). 앞의 책, p. 84
 - 19) 고구려발해연구 (1963). 각지유적정리 보고. 과학원 출판사. p. 63 등근 동심원문양은 기하학문양 중 하나로써 해문양의 의미를 지니는 고분으로서는 고구려고분벽화 중 유일한 것이다.
 - 20) 임영주 (1991). 앞의 책. p. 52
 - 21) 왕광석 (1985). 고구려 도교사상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22) 장은영 (1995). 문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사신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pp. 65-66
 - 23) 북한고고학총서 (1985).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東京. p. 56
 - 24) 노현숙 (1997). 앞의 책, p. 38
 - 25) 조선일보사 (1993). 집안 고구려벽화. p. 77
 - 26) 임영주 (1998). 한국 전통 문양집-10 나무무늬. 예원 p. 9
 - 27)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이야기. p. 50
 - 28) 임영주 (1998). 앞의 책, p. 11.
 - 29) 임영주 (1998). 위의 책, p. 11
 - 30) 임영주 (1998). 위의 책, p. 11
 - 31) 임영주 (1983). 앞의 책, p. 74
 - 32) 안휘준 (1998). 앞의 책, p. 92
 - 33) 북한고고학총서 (1985). 앞의 책, p. 57
 - 34) S.B.S 비디오 (1995). 아! 북녘 고구려 벽화. S.B.S 프로덕션
 - 35) 안휘준 (1998). 앞의 책, p. 101
 - 36) 북한고고학총서. 앞의 책, p. 50
 - 37) 노현숙 (1997). 앞의 책, pp. 48-49
 - 38) 노현숙 (1997). 위의 책, p. 49
 - 39) 전호태 (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pp. 76-84